

투데이 칼럼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공존의 지혜 찾아야

나는 왜 태어났으며 삶은 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은 누구나 철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 존재에 관한 근본적인 이 질문에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고 여기에서 해방되어 보다 시급한 일상생활에 몰두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의문에서 헤어지지 못해 평생 고뇌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에 대한 부정적인 답에 이르러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의 '이기적 유전자' 나 '지상최대의 쇼' 등 여러 저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는 만족할 만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답을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의문의 본질은 그 문제에 대한 과학적 해답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보자면 모든 생명체는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 열이 식고 물이 고이기 시작했던 30여억 년전 어느날 여러 무기물들간의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지극히 작은 유기물질에서 태어났다.

그 후 수십억년의 긴 세월간 끊임 없이 진화되어 현재의 수많은 생명체로 분화되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동식물을 막론하고 그 최초의 유기물질을 같은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셈이다.

그 유기물의 탄생일이 언제인지 가정하여 지상의 모든 생물이 모여 공동 기념행사라도 해야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진화론은 인간이 단지 고릴라 등



최병효 前 주 노르웨이대사·LA총영사

유인원과 유전자가 90% 정도 같을 뿐 아니라 나무 등 식물과도 90% 이상 같은 유전자로 구성 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그 최초의 유기물질이 번식해서 만들어 낸 생명체의 유전자는 동식물의 모든 종을 막론하고 4종류의 DNA에 다들어 있다니 허망하기가

그 4개가 어떤 서열로 어떤 꼬임의 형태를 갖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표현형(phenotype)이 인간 개, 돼지, 장미, 은행나무, 박테리아가 된다니 환경론자가 아니라도 우리의 형제인 타 동식물을 폄하하거나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중의 99%는 개 돼지라고 함으로써 개 돼지를 폄하한 죄로 최근 파면 당한 공무원에게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니 우선 유전자 공부부터 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이나 도킨스의 책들을 읽었던들 우리와 유전자가 99% 이상 같아서 형제나 다름없는 개 돼지를 그리 우습게 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쓸데없는 물

의와 개인적 고초를 겪지는 않았을 것이 때문이다.

사실 인간이 박테리아나 나무, 개, 돼지보다 유전학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한다. 자연에서는 오래 살아남는 놈이 잘 난 놈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발생한지 수십만년밖에 안된 인간은 이제 시작이니 수억년을 이 험한 세상에서 버텨온 고사리나 은행나무에게서 살아남기 위한 많은 지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우리 인간들이 현재는 지상의 모든 생명체를 사실상 지배한다고 해서 너무 우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간(homo sapiens)이라는 종(species)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다른 종에게 왕좌를 내줘야 할 것이다.

현생 인류가 유인원에서 진화해서 발생한다는 2-30만년 정도밖에 안된 종의 평균 수명으로부터 보면 아직 2백 수십만 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인류가 현재와 같은 우월적 위치를 내내 유지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연이 더 선호(자연선택 nature's selection)하거나 우리를 누르고(생존 경쟁 struggle for existence), 또는 돌연변이(mutation)에 의해서 지상의 왕자로 군림할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우리를 식량으로 사냥하거나 노예로 부리며 고도의 문명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민중의 99%뿐만 아니라 100%가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며 살 테니 이러한 의미에서도 개 돼지를 깔보거나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진화론의 원리를 더 잘 가르치려 노력하기 전에 교육부 간부들부터 모아놓고 이에 관한 특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인류도 개 돼지와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보이지도 않는 생명의 씨앗이 30여억년 전에 뿌려져 열심히 생식활동을 하여 여기까지 온 것 뿐이다. 그러나 나는 왜 태어났는가 물으면 조상들의 열성적인 짝짓기의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고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짝짓기를 했냐고 나무러더라도 유전자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그런 죄밖에 없다.

그렇게 태어난 삶이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로 우리의 조상처럼 열심히 유전자를 후세에 퍼뜨리는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체로서 가진 최선,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일 것이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태어난 이상 그 섭리를 잘 생각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이 아닌가 한다. 과학을 떠나 종교적 차원에서 문제를 논하는 것은 별개이니 종교에서 보다 나은 해답을 찾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에 어려운 사람들은 진화론의 원리를 생각하며 지구를 집으로 삼고 있는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공존하는 지혜를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설

예산 증액으로 전북 발전 매진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 증액을 위해서 보통 이상의 열정을 가져야겠다. 매년 예산 편성 이야기가 나올 때면 반복해 당부했던 게 있다. 예산을 더욱 증액시켜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때마침 도지사가 기재부의 이달 말 2차 심의와 관련해 동분서주하고 있어 보기가 좋다. 그런데 고마운 생각 한편으로는 답답한 것도 있다. 도내 대형 현안 예산을 기재부가 문제 예산으로 보고 있다니 말이다.

전북도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뛰어라 하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다른 지역은 내일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재 뭇을 행하는데 역척스러움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 현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힘이 필요하다. 경쟁이든 협치이든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고 했거니와 예산 증액을 위하여 지금은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나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힘 있는 자들이 기재부를 찾아가서 전북 발전 논리를 설득력 있게 말할 때이다. 전북 발전을 위한 대형 현안들이 무제 예산으로 분류돼 있는 마당에 팔짱을 끼고 관망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예전에 도세가 전북보다 못했던 지역들이 앞서 나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보통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그리고 협조가 필요하다싶으면 그걸 요구해야 한다.

정말이지 이번에는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으면 한다. 예산이 증액된다 해도 그게 소액이라면 반감지 않다. 전북도는 고장의 낙후와 관련하여 도민들의 상처가 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발전 청사진이 제대로 그 실체를 보여려면 거둬들인 증액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증액된 예산이라도 이쪽에서 원하는 만큼의 증액된 것이어야 한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팔뚝 뭉쳐 총력투입을 발휘해야 하는데 도민들은 그에 대한 기대가 크다.

수도권 규제 폐지 움직임 심상치 않다

수도권 규제 폐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저번에 수도권에 10명 의원 10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나선 것이 신경 쓰였는데 이번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도 동일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자칫 수도권의 의원들 모두가 법률안 발의에 호응하고 나설 경우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규제는 낡은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어찌 이쪽의 대응이 너무 조용하다.

수도권의 규제 폐지에 대해 이쪽의 입장은 분명하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법안 발의는 말도 안된다. 그것은 수도권민의 독식을 말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기업들의 비협조로 지방 경제가 죽을 수 있는 판이다. 수도권에 규제가 완전히 풀리게 되면 국토의 나머지 전체의 지역 경제는 고사되는 게 뻔한 수순이다. 수도권 여야 의원들의 뜻밖의 움직임에 비수도권은 한 방 맞은 기분이다. 저번에 전북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서명 운동을 전개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강력한 움직임이 있어야 할 판이다. 각 지역이 규제완화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현 정부 이상한 방향으로 휘둘리고 있다.수도권에 대한 규제 폐지 시도는 좌시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 그동안 서울과 경기도에서 규제가 부담하다며 풀어줄 것을 정부에 계속 요청했는데 그게 조금씩 먹혀들더니 지금에 이르러 있는 까닭이다. 그 먹혀들고 있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본래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국토의 고른 발전이 목적이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 정부 들어서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수도권에 규제가 폐지되면 전북의 낙후는 더욱 심화된다. 고용 효과 7천 명 감소에 생산 효과 2조원 감소를 당해야 하니 말이다.

당연한 말을 여기 또 하거나 수도권에 대한 규제 폐지 움직임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토부에서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음은 답답한 일이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수도권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게 뻔하다.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원안대로 가야만 한다.

독자제언

칭찬, 상대방에 대한 최선의 배려

삶에 자신 있는 사람은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칭찬은 상대방에 대한 최선의 배려이자 존경의 표시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칭찬을 받는 상대방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평생 살아가면서 고맙게 여기며 나에게 대한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칭찬이나 억지로 과대 포장된 칭찬은 아부로 느껴진다. 칭찬과 아부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엄격하게 구분된다.

아부는 마음에도 없는 거짓이지만 칭찬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이 가득 담긴 언어이기 때문이다.

내가 무심코 던진 칭찬 한마디가 행운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화살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혹시 상대방의 칭찬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다.

방곡선 원신경철서 남문지구대 경장

독자제언

'단독방 폭력' 인식의 전환 필요

4살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한글공부를 하는 시대, 바야흐로 '손바닥 혁명'이라 불리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우리의 일상 속 대화 패턴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에 걸 맞는 규칙이나 예절이 새롭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소위 일류대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단독방에서 무려 1년 동안이나 사적 인 음담패설을 나누고, 한 고등학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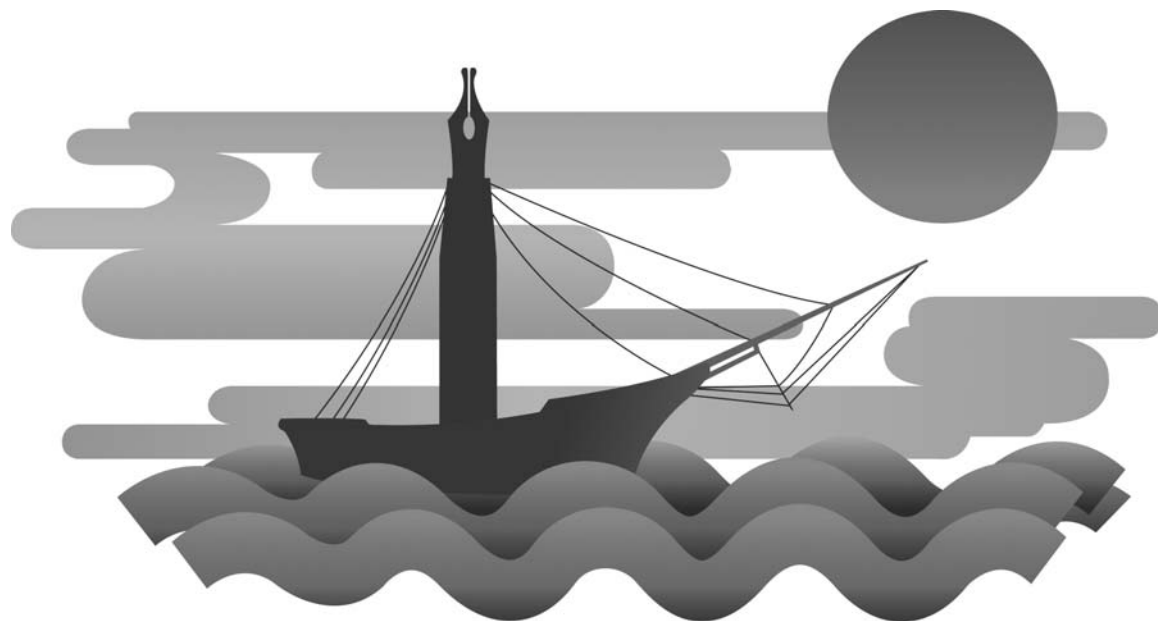
서는 친구에 대한 헐담과 욕설로 집단 괴롭힘을 하여 대상학생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온라인상에서 나누는 대화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그러므로 항상 '입조심'을 해야하고, 언어를 쓸 때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단독방의 공공성, 나아가 SNS 시대에 걸 맞는 인식과 규범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설영미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사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